

민법

1. 우리 민법이 채택하고 있지 않은 것은?

- ① 계약자유 원칙
- ② 과실책임 원칙
- ③ 신의성실 원칙
- ④ 물권변동의 의사주의
- ⑤ 권리남용금지의 원칙

2. 채무초과 상태인 甲은 그 금전채권자 A의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친구 乙과 짜고 자신의 X토지를 乙에게 매도한 것처럼 계약서를 꾸며 乙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이전 등기를 해두었다. 그후 乙은 X토지를 丙에게 매도하고 이전 등기를 해주었다.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?

- ① 甲과 乙의 계약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이다.
- ② 丙이 선의인 경우 甲은 丙을 상대로 甲과 乙의 통정허위 표시를 이유로 丙의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.
- ③ 丙이 악의인 경우 A는 甲과 乙의 통정허위표시를 이유로 丙을 상대로 甲의 丙에 대한 등기말소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.
- ④ A는 甲을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.
- ⑤ 선의의 丙이 악의의 丁에게 X토지를 매도하고 이전 등기 해 준 경우, 엄폐물이론에 따르면 甲은 丁을 상대로 丁의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.

3. 2025년 7월 丙소유인 X임야를 취득하고 싶은 甲은 먼저 친구 乙과 명의신탁 약정을 맺은 뒤 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, 丙에게 부탁하여 乙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도록 하였다.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?

- ① 甲은 乙과의 약정의 무효를 이유로 자기 앞으로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.
- ② 甲과 乙 사이에서는 甲이 X임야의 소유자이지만, 제3자 丁과의 사이에서는 乙이 소유자이다.
- ③ 丙은 乙을 상대로 이전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.
- ④ 甲과 丙의 매매계약은 명의신탁약정의 무효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.
- ⑤ 乙이 X임야를 악의의 丁에게 매도하고 이전 등기를 해 준 경우, 丙은 丁을 상대로 이전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.

정답

1. ④ (하)    2. ④ (중)    3. ② (상)